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

Tag: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3:1-8)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백성의 정복자)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였을 가능성이 크다.

성경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막15:43))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동시에 율법학자. 성경에는 예수님께 대해

서 호의적인 사람이 곧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부자), 가말리엘 이렇게 세 사람.(행5:34;그는 베드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였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가담하지 않았음.) 이 세 사람은 모두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율법학자들이었다. 다른 공회원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경에는 소개되지 않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두 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틀림없이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가 왜 밤중에 남 몰래 예수님에게 왔을까? 그가 와서 한 말이 그의 방문 의도를 설명해 준다.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선생;율법선생)으로 인정하고 있다. 당시에는 저명한 율법선생들은 대체로 산헤드린에 소속되어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실력도 대단하고, 일으키는 기적도 놀라운데 주류세력에 속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류세력들이 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남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의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그러나 산헤드린을 인정한 로마의 조건은 반역은 절대 안됨이었음)

1. 로마 사람들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2. 헤롯왕은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왕의 자리를 구매한 자이니 정통성이 없다. (더구나 에돔사람, 원수형제?)
3. 혁명의 주체세력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적어도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KY대학 출신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산헤드린 그룹 내에서는 여당이 사두개인, 야당이 바리새인이었으며 치

열하게 정권다툼으로 싸우고 있었으며, 교리적으로도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4.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반정부 세력들과 헤롯왕의 패거리(왕당파, 헤롯당)까지 정권욕으로 가득하였고,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직을 돌아가면서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침예하게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었다.

5.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과 침예하게 대립했던 율법주의자들이 더 많았고, 그 중 소수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인정했으나, 절대 다수 산헤드린 내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6.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을 반드시 바리새인 그룹에 영입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혁명을 완수해야 하리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크다. 예수님의 실력이나, 카리스마나, 권위라면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국가를 건설하는데 적극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던지, 아니면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자로 보았다.

7. 당시 많은 사두개인과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매우 급진적이고 깨어있는 바리새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에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거든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고 선포하신 것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단순히 어머니 뱃속에서 두 번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는 의아해 하였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점진적 설명이었으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도록 하셨다.

아무튼 거듭난다는 표현은 니고데모가 사용한 표현이고, 예수님은 정확하게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아무튼 거듭남은 오직 성령으로만. 그분이 성령인 이유는 오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임하심.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 대적자들은 가끔 이렇게 벼락에 맞듯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성령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니고데모는 머리를 굴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설마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고 물었다.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 정확하게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두 번째로 태어날 수 있단 말 인가요? 하고 물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다.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더 정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물로 한번 성령으로 한번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

물과 성령;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말함.

ὕδατος καὶ Πνεύματος 휘다토스 카이 프뉴마토스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실 물세례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 0순위에 해당하는 과목을 빼먹었으니 영적인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 셈이다. 품위나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가 그로 하여금 회개나 물세례를 받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절하게 더 설명해 주셨다. 영적 이해력이 딸리니

더 세밀하게 설명하신 셈이다.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 아닌가? 나중에 일당 백을 할 사람이다.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σαρκός, σὰρξ 사르코스(육으로), 삭스(육)

사르코스는 성령이 없는 육체를 의미한다.

1. 단순히 ‘살’로서의 몸을 뜻하며(DNA가 들어있는 몸+네폐쉬(소울))
2. 영적으로는 ‘죄인으로서의 육체’를 뜻한다. 즉, 정신적으로 성령이 없는 영혼(소울)을 뜻한다. 죽은 영혼. 그러므로 ‘삭스’는 단순히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 엄밀하게는 죽은 영혼을 뜻함. (엡2.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Πνεύματος, πνεῦμά 프뉴마토스,(성령으로) 프뉴마(영)

‘프뉴마토스’의 앞 글자는 대문자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성령’으로 표현한다. 앞 글자가 소문자일 경우에는 ‘삭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성령 받은 영’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확하게는 위로부터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내 죽어 있는 영이 살아 있는 영이 된다.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3:1-8)

8절은 어떻게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다. 성령을 설명할 때 구약 전통은 ‘바람’으로 표현한다. 예수님은 특히 바람의 ‘임의성’을 강조하셨다. 성령은 주권자시다. 내가 원한다고 내게 임하고 그러지 않는다. 까다로운 분은 아니니 염려할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임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바람이 불면 소리는 들리기 때문에 오감 중 어떤 한 가지 감각(꼭

청각이 아닐 수 있다. 아니면 육감) 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점은 성령의 주권과 그로 인한 임의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의 ABC를 잘 따라가자. 몇가지 핑계로 나는 이래야 해/ 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처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겸손히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하며 갈망하자. /전도하고 성령님께 호소하자. /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자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살자.

모두 성령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세상을 바로 보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여호와를 기뻐하라

성경: 시편37편 4절

Tag: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
리로다 (시37:4)

1. 여호와를 사랑하라
2. 여호와를 경외하라
3. 여호와를 찬양하라/송축하라
4. 여호와께 예배하라
5. 여호와께 감사하라
6. 여호와께 기도하라
7. 여호와를 기뻐하라 (복을 주셨기 때문에?X, 내 말을 들어 주셔서? X)
8. 여호와께 순종하라
9. 여호와를 의뢰하라
10.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가지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를 것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핵심이다.